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음 3월 22일) 제227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이 총리 “수소경제 선도 적극 지원”

### 완주 수소경제 현장 방문

정부 차원 활성화 의지 피력  
수소충전소 구축 전략 마련  
경제법 제정 등 적극 추진

미래형 고부가가치 국가 신성장 동력인 수소경제의 국내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완주군(군수 박성일) 발걸음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완주공장 등 완주군 수소경제의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의 '수소상용차 기반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실 최창원 경제조정실장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정열 국토부 2차관 등이 대동했다.

또 송하진 도지사와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일 완주군수, 김승수 전주시장, 장영달 우석대 총장, 문정훈 현대차 공장장, 허지행 한솔케미칼 공장장, 김기현 일진복합소재 대표, 장성용 기온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간담회 석상에서 이호기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장으로 부터 완주군 수소경제 현황을 청취하고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완주군의 비전과 감점 등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완주군의 수소경제 중심도시 행보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 총리는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수소버스를 타고 현대차 공장의 수소연관 생산품을 시찰하며 근로자들을 격



이낙연 국무총리 완주 수소경제 현장방문이 25일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낙연 총리가 수소탱크를 만지고 있다.

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포함한 7개 R&D 연구기관, 현대차 공장과 수소 부품기업 중심의 수소상용차 생산체제와 수소생산기지 기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완주군 수소경제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지난 1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산업 및 미래형 생태계 구축’ 사업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의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에 정부와 관심과 기

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소산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안호영 의원은 “완주의 수소경제 현장방문 요청에 흔쾌히 응해줘 감사하다”며 “완주군의 수소경제 인프라와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완주군의 수소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전북도와 정치권, 전주시와 함께 수소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소경제 비전에 발맞춰 완

주·전주권이 올해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과 나후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군수는 이날 이 총리에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국토부가 선정할 예정인 ‘2019년 수소 시범도시’에 완주·전주 광역권 수소시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전략 마련, 수소기술 로드맵 수립, 수소경제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 익산 미륵사지석탑, 국민 품으로

### 30일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

북도와 금산사가 주관해 추진한다.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말 무왕때인 639년에 세워져 국내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자 가장 큰 석탑으로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석탑 1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유물들은 미륵사 창건과정과 시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적

위상, 사리봉안 의례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버락에 무너져 내린 탑을 시멘트로 덧쌓아 놓아 미관상은 물론 구조적 안정에도 큰 부담을 줬다.

1998년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노후 등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어 1999년 문

화재위원회에서 6층까지 해체수리를 결정하면서 보수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했고 2017년까지 원래 남아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했으며, 최근 가설 시설물의 철거와 주변정비까지 마무리하고 지난 3월 23일부터 일반에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해 왔다.

/김집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社告



## 제16회 전국 품바왕 명인전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후 6시 부터  
장소: 전주 품남문 광장

서민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품바 명인전이 전주 품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 ▲주최: 새 전북문화진흥원
- ▲주관: 새 전북문화진흥원
- ▲후원: 전주시
- ▲문의: 새 전북문화진흥원 (063-288-9700)

## 전주, 세계 여행자들도 인정

남성매거진 에스콰이어 중동판 ‘여행 버킷리스트’에 소개돼 독일 노트베스트자이팅·베스트팔렌포스트 등에도 게재돼

세계 최고의 남성매거진이 전주 미식여행을 전 세계 여행자들이 꼭 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여행 버킷리스트로 선정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여행잡지인 룬리플래닛이 전주를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 3위로 소개한 이후 전 세계 미디어들이 이를 앞 다투어 소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히, 전 세계 발행부수 80만부에 이르는 남성매거진인 ‘에스콰이어’는 지난 7일 자사 중동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여행 버킷 리스트 아이디어: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100가지(Travel Bucket List Ideas: 100 things to do before you die)’에 △에과도르 갈라파고스 섬 항해 △뉴질랜드에서의 번지점프 △스위스 알프스의 헬리콥터 스키 △미국의 절경 로드트립 △사하라사막의 모래서핑 등과 함께 전주 미식여행

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미디어인 노트베스트자이팅(Nordwest zeitung), 베스트팔렌포스트(Westfalenpost)와 북부엔지역의 지방지 오버 에슈스 프레스(Oberhessische Presse) 등도 전주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들 독일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고층건물과 무한한 아파트인 반면 전주에 가면 색다른 전통 한옥건물들이 밀집돼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은 옛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현대적인 음악들 덕에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시는 그간 도시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해 영문 SNS를 운영하고 의신호정·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 해외어워드 응모 등에 힘써왔다.

/송효철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